



<아침바다 갈매기는>이 재현하는 지방 소멸의 파국적 표상

- 내부식민주의와 전위된 폭력의 구조

이지행*

<차례>

1. 도시적 스크린과 타자화된 시골
2. 내부식민주의와 식민성의 내면화
3. 문화적 분업 하의 주변부 경제 종속과 왜곡된 배타적 연대
4. 내면화된 식민성과 전위된 폭력, 그리고 국가의 생명정치
5. 파국을 넘어서는 애도와 환대의 윤리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시골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이 보여주는 지방 소멸의 파국적 표상들에 주목한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인 이주노동자만 남은 오늘날 어촌의 광경 안에서, 현실적 필요로 인해 선주민과 외지인이 공존해 살아가지만 내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외부자를 향한 편견과 폭력적인 공동체주의, 그리고 관료주의적 무관심의 표상들은 “오늘날의 지방 공동체는 왜 소멸과 파국으로 치닫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방소멸론이 내놓는 인구경제학적 설명을 넘어 복합적 층위의 감정 구조를 보여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는 마이클 헥터의 내부식민주의 이론과 아시스 난디의 내면화된 식민성 논의를 비판적으로 원용한다. 영화 속 어촌 마을은 중심부에 의한 경제적 수탈과 문화적 분업이 고착화된 내부식민지로 재현되며, 이곳에서 헥터가 말한 종족적 연대는 외부의 착취에 저항하는 정치적 힘이 아닌, 생존을 위해 내부의 약자를 배제하는 배타적 카르텔로 변질된다. 본고는 이러한 왜곡된 연대가 난디가 지적한 '내면화된 식민성'을 통해 이주노동자라는 취약체에게 폭력을 전위(轉位)시키는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국가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은 이러

www.kci.go.kr

* 전북대학교 K-엔터테인먼트학과 조교수

한 폭력을 제어하기는커녕, 서류상의 증명을 통해 이주민을 '불법적 존재'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생명정치적 기제로 작동함을 밝힌다.

그러나 결론에 이르러 구조적 파국 속에서도 젊은 세대의 탈주를 돕는 노년 세대의 선택을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으로 독해한다. 이는 혈연과 지연에 얽매인 배타적 공동체성을 넘어, 서로의 결핍을 깨닫고 타자의 비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멸을 감내하는 환대와 배종의 윤리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인구학적 위기뿐만 아니라 환원하는 기존 담론을 넘어, 소멸해가는 공간에서 남겨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성찰적 태도와 대안적 연대의 방식을 모색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내면화된 식민성, 내부식민주의, 대안적 연대, 문화적 분업, 생명정치, 이주노동자, 지방소멸, 파국

1. 도시적 스크린과 타자화된 시골

영화의 구조가 대도시의 경험에 기초해 있다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관찰처럼¹⁾ 초기 영화는 대도시의 대중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1895년 3월 22일 뤼미에르 형제가 세계 최초로 유료 관객을 상대로 영화를 상영한 이후, 프린트 대량 복제 기술과 공동 관람 형식에 기인한 저렴한 비용은 영화를 대부분 도시 노동자 계층으로 이루어진 대중의 여가 생활, 즉 대중문화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영화가 단순히 현실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 너머의 드러나지 않은 차원까지도 보여준다고 믿었던 영화연구자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가 주목한 것 역시 20세기 초반의 영화들 속 피사체로서의 근대적 대도시의 삶이었다. 그는 『대중의 장식(The Mass Ornament)』²⁾에서 도시, 여행, 베스트셀러,

1) 벤야민은 “영화만이 도시의 본질에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포괄적인 제시가 아닌 단편적인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영화의 구조적 속성을 들었다. 그랜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42-43면.

2) Siegfried Kracauer, *The Mass Ornament*, Trans. and Ed. by Thomas Y. Levi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originally published as *Das Ornament der Masse: Essays*, Suhrkamp Verlag, 1963)

영화, 아케이드, 권태와 같은 것들이 근대의 대도시 삶이 보여주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안한 무너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근대적 도시 경험 자체가 피상적인 무너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화 매체와 영화 관람 행위 역시 이러한 무너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증명하듯, 발터 루트만(Walter Ruttmann)의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악(Berlin: Symphony of a Great City)>(1927)이나 지가 베르토프(Dziga Vertov)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Man with a Movie Camera)>(1929)와 같은 초기 영화들은 기계적 몽타주와 도시의 속도감을 결합하여 영화 매체가 본질적으로 도시적 산물임을 시각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이처럼 영화 탄생 초기부터 스크린은 근대 도시의 풍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거울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적 경험이었으며, 이러한 영화와 도시의 뿌리 깊은 친연성은 비단 서구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농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는 도시 배경 영화에 비해 그 비율이 눈에 띄게 낮다. 실제로 영화 속 배경이 되는 지역별 촬영 기간을 나타내는 계량적 지표인 지역영상위원회의 촬영 지원 통계를 살펴보자. 2019-2023년 지역별 누적 촬영 지원 현황에서 서울(3,843일), 부산(3,507일), 인천(1,977일), 전주(1,936일), 대전(1,036일) 등 대도시에서 이루어진 촬영이 전체 촬영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 이는 한국 사회의 자본과 인프라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된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동시대 한국 상업영화의 주된 장르인 스릴러, 범죄 액션이 도시적 삶의 리듬과 갈등 구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독립영화에서조차 농어촌은 소외되어 있다. 독립영화가 천착하는 동시대 청년 세대의 빈곤, 주거 불안정, 노동 소외, 관계의 파편화 같은 문제는 대부분 도시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편의점 등 도시의 주변부 공간을 무대로 한다. 한국 영화가 다루는 '동시대성'은 곧 '도시성'과 동의어로 취급받는 셈이다.

3)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2024년도판 한국영화연감 47호』, 영화진흥위원회, 2023, 97면.

물론 한국 영화사에서 농어촌의 삶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손은하의 지적처럼, 한국 영화에서 ‘로컬(local)’은 일제강점기에는 제국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표상으로, 근대화 시기인 1960~70년대에는 도시에 대비되는 지역색의 발현지로 꾸준히 호출되어 왔다.⁴⁾ 특히 최근에는 각 지역 독립영화협회 등 독립영화 진영을 거점으로 구체적인 지역성을 담아내려는 지역 영화(local cinema)의 흐름 또한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지방(농어촌) 배경 영화의 양적 존재 여부가 아니다. 핵심은 그 영화들이 취하고 있는 시선이 지역의 실재를 담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심부(서울)의 욕망이나 공포를 투사하기 위해 타자화된 지방 영화(provincial cinema)의 문법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점이다.⁵⁾ 대중적 파급력이 큰 상업 영화는 물론, 기존의 영화적 경향 안에서 농어촌은 대체로 도시적 합리성의 대척점에 놓인 공간으로 이분화되어 소비되는 경향이 짙다.

하나는 도시가 상실한 낭만적 고향으로서의 시골이다. <집으로>(2002), <꽃피는 봄이 오면>(2004), <계춘 할망>(2016), <리틀 포레스트>(2018) 등의 영화들은 지친 도시인이나 청년이 잠시 머무는 치유와 노스텔지어의 공간으로 시골을 이상화한다. 다른 하나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전근대적 무법지대이다. <이끼>(2010),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2010), <곡성>(2016) 등의 스릴러 장르에서 시골은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과 맹목적 신앙, 혹은 은폐된 범죄가 득실거리는 음험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재현들은 시골을 도시의 결핍을 채우거나 공포를 투사하는 스크린으로

4) 손은하, 「한국영화를 통해서 본 로컬과 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311-314면.

5) 손은하는 2000년대 이후 구체적인 지명과 방언을 사용하는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상업 영화 내에서 지방은 서울말을 사용하는 주인공에 대비되는 희화화된 사투리의 공간이거나, 서울의 욕망과 공포가 투사되는 대상화된 공간으로 그려지는 경향을 띠다고 지적한다. 손은하, 위의 글, 322-323면.

활용할 뿐, 그 안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재성과 구조적 모순은 소거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2024)이 보여주는 성취는 남다르다. 이 영화는 독립영화 특유의 리얼리즘적 시선을 견지하며, 기존의 주류적 재현 문법이 답습해 온 도시와 시골에 대한 도식적인 이분법을 탈피한다. 영화는 어촌을 낭만적인 귀촌의 대상이나 장르적 공포의 무대로 소비하는 대신, 자본과 인구가 빠져나간 소멸의 공간에서 남겨진 자들이 겪는 구조적 현실을 현미경적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즉, 도시의 시선으로 재단된 타자화된 지방이 아니라, 과국을 살아내는 주체들의 내부자적 시선을 통해 지방 소멸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친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는 독자적인 비평적 지위를 획득한다.

영화 속 어촌 마을에는 40대 어부인 용수(박종환 분)가 몇 없는 젊은이 층에 들 정도로 그를 제외한 젊은 어부는 거의 남지 않았다. 사양산업에 접어든 어촌에 남은 것은 고령자들과 이주노동자들 뿐이다.⁶⁾ 늙은 어머니와 베트남 출신 아내와 살아가며 미래가 보이지 않아 좌절감을 겪던 용수는 그가 15년간 조업을 배운 선장 영국(윤주상 분)의 적극적인 묵인과 동조 아래 조업 중 사망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탄 뒤 이곳을 떠려고 한다. 영화는 언뜻 탈출하려는 젊은 세대와 이를 돕는 기존 세대의 혼 혼한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실은 가만히 앉아 죽을 수 없어 죽음을 위장하는 사람과, 갈 곳이 없어 이곳에 남아 소멸을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영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낭만적인 배경으로 소비되거나 혐오의 공간으로 타자화되던 농어촌 마을이 구조화된 사회경제적 부조리의 공간으로 조명되면서 우리에게 소멸되어가는 한국 시골의 현실을 성찰할 계기를 열어준다. 현실적 필요로 인해 선주민과 외지인이 공존해 살아가지만 마을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외부자를 향

6) 영화 속 주요 등장인물 중 마을에 들어 온 외부인으로 등장하는 형락(박원상 분)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은 '공동묘지'나 다름없다.

한 편견과 폭력적인 공동체주의가 자리하며, 이에 더해 관료주의적 무관심과 방치는 점점 마을을 황폐하게 만든다. 영화에 드러난 동시대 농어촌 현실에 대한 표상은 ‘오늘날의 지방 공동체는 왜 소멸과 파국으로 치닫는 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기존의 지방소멸론이 내놓는 인구경제학적 설명을 넘어 복합적 층위의 감정 구조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개봉 직후 평단으로부터도 지방 소멸의 현실을 가감 없이 포착한 리얼리즘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다수의 평론과 기사를 통해 형성된 비평적 담론은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영화의 의미를 독해하고 있다. 첫째, 영화가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과 서사를 지방 소멸이라는 동시대의 암울한 사회적 징후로 읽어내는 경향이다. 다수의 평론은 이 영화를 희망 없는 지방의 현실을 가감 없이 담아낸 사회파 영화로서의 성취에 주목한다. 어촌 사람들의 이중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⁷⁾로 바라보며, 용수의 보험 사기를 “공동묘지로 바뀌어 버린 어촌 공동체”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젊은 어부가 살기 위해 “존재의 완전한 상실”⁸⁾을 내어놓는 선택으로 읽어낸다. 또한 어촌의 비극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재편되고 남은 자들의 “초라한 ‘도토리 키 재기 게임’”⁹⁾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시각은 영화가 재현하는 폭력과 갈등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지방 공동체가 겪는 필연적인 진통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문제 의식과 맞닿아 있다. 둘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물 간의 연대와 윤리적 선택에 주목하는 휴머니즘적 해석이다. 이를테면 자식이 실종되자 이제 자신은 추방되나며 근심하는 베트남 며느리 영란(카작 분)

7) 윤중강, 「2024년 도착한 사회파 감독의 슬프고 아름다운 선물 ‘아침바다 갈매기’」, themove, 2024.12.4. <http://m.ithem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3>, 2026.1.2. 확인.

8) 오승주, 「아침바다 갈매기가 실어올린 금빛이 터무니없이 슬프다」, 브런치 리뷰, 2025.1.13. <https://brunch.co.kr/@dajak97/315>, 2026.1.2. 확인.

9) 옥미나, 「살기 위해 택한 ‘죽음’이란 거짓말...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방황」, 『한국경제』, 2024.12.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982541>, 2026.1.2. 확인.

을 안심시키는 판례(양희경 분)의 모습, 그리고 실종된 용수의 죽음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수령해 고향으로 돌아가라며 영란을 설득하는 영국의 모습을 통해, 비루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구원하려는 인물들의 노력에 가치를 부여한다.¹⁰⁾

본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나, 최근 조흠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생명정치’ 및 도린 매시(Doreen Massey)의 ‘권력의 기하학’ 개념을 통해 영화의 정치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¹¹⁾ 그는 국가가 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현대 정치의 문제가 영화 속 인물들에게 투영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이주 여성인 영란의 위치를 법적 질서 안에 포함되면서도 권리를 박탈당하는 ‘포함적 배제’의 전형으로 해석하며, 어촌 마을의 비극이 단순한 빈곤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시공간적 흐름에서 소외된 권력의 기하학에 기인함을 주장했다. 이는 영화 속 폭력과 배제의 문제를 구조적 차원, 특히 국가와 자본의 통치술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존의 논의들은 지방의 위기와 폭력성을 자본주의나 국가 시스템이 불러온 파국으로 기술하거나, 인물들의 휴머니즘적 태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담론들의 성취를 수용하되, 분석의 초점을 국가와 중심부라는 거시적 권력이 어떻게 주변부인 어촌 내부의 미시적 권력관계(토착민-이주민)로 전이되고 모방되는지를 밝히는 데 둔다. 조흠의 논의가 어촌 주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벌거벗은 생명’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어촌 주민들이 왜 또 다른 약자인 이주노동자를 향해 가해자의 위치를

10) 박지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 아트인사이트, 2024.11.21.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72892>, 2026. 1.2. 확인.

11) 조흠, 「〈아침바다 갈매기는〉: 벌거벗은 삶, 포함적 배제 그리고 권력의 기하학」, 『대한토목학회지』 544, 대한토목학회, 2025, 85-87면.

점유하려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영화 속 마을 사람들이 영란에게 가하는 폭력은 단지 국가 시스템에 의한 수동적 배제의 결과가 아니라, 중심부의 식민적 논리를 내면화한 주변부 주체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고리를 억압함으로써 훼손된 주권을 가상적으로 회복하려는 능동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본고는 동시대 한국의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아침 바다 갈매기는>에 나타난 지방 소멸의 파국적 표상들을 추적하여, 주변부의 위기가 어떻게 외부자, 특히 이주노동자를 향한 ‘이중의 식민적 시선’과 ‘배타적 공동체주의’의 논리로 전이되는지를 고찰한다. 여기서 이중의 식민적 시선이란, 중심부(서울)에 의해 주변부(농어촌)가 식민화되는 1차적 억압이, 동일시 기제를 통해 농어촌 내부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를 향한 하위 제국주의적 시선으로 복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일국의 중앙-지방 관계를 지배-종속으로 구조화한 마이클 헤chter(Michael Hechter)의 내부식민주의 이론과, 식민주의를 피지배 주체의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내면화 과정으로 파악한 아시스 난디(Ashis Nandy)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원용하고자 한다.

2. 내부식민주의와 식민성의 내면화

지방소멸 담론의 진원(震源)은 2014년 일본 창생회의가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増田レポート)¹²⁾이다. 이 보고서는 2040년까지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896개 지역, 일명 ‘마스다 리스트’를 제시하며 지방의 지속 불가능성을 저출산 및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직접적으로 결부시켰다. 이 보고서

12) 마스다 보고서는 이후 단행본인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으로 발간되었으며 국내에도 번역되었다.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김정환 옮김,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4.

는 지방의 소멸이 결국 도쿄의 과밀화와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며, 인구학적 위기를 가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 사회로 급속히 이식되어, 가임기 여성 인구와 고령 인구 비율에 기초한 ‘지방소멸 위험지수’¹³⁾가 지자체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절대적 척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소멸 담론은 지나치게 인구 공학적이고 경제주의적인 관점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숫자로 환산된 위기 지수는 지방을 단순히 생산성이 결여된 소멸 예정지로 타자화하거나, 출산을 제고라는 기능주의적 처방에만 함몰되게 만듦으로써 지방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의 본질을 은폐할 위험이 크다. 특히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 입각해’¹⁴⁾ 효과적인 대상에 투자를 집중하자는 마스다 보고서의 논리는, 지방이 중앙에 의해 ‘선택받거나 버려지는’ 대상이라는 전제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직면한다.¹⁵⁾

13)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이 공식에 의하면 지방의 생존 가능성은 오로지 가임기 여성의 숫자에 달려있다. 이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만 환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산율이 사회적 인프라, 일자리, 삶의 질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임에도 마치 젊은 여성이 없어서 지방이 망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멸 예정지라는 낙인이 지역 공동체에 ‘어차피 사라질 곳’이라는 패배감을 주입하여, 실제 소멸을 가속화하는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글을 참조. 이상림·이지혜·Bernhard Koppen·임소정·성백선, 「지역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4) 마스다 히로야, 앞의 책, 59면.

15) 박승현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중앙에 의해 선택받고, 동원되고, 버려지는 지방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곳으로, 후쿠시마의 파국을 통해 마스다 보고서의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안고 있는 배제의 문제를 진지하게 볼 것을 요구한다. 이외에도 지방소멸 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지방소멸 담론이 단순히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나 국가의 경제적 위기 차원으로부터 환원될 것이 아니라,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지방의 존재론과 공동체의 존립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16,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 2017, 181면.

지방소멸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나 국가 경쟁력의 차원으로 환원될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평등한 역학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주변부 공동체가 겪는 박탈감과 생존 불안이라는 정동적 현실의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구 통계의 숫자에 가려진 지방의 구조적 종속성과 내면화된 식민성을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독해틀이 요청된다. 이에 본고는 내부식민주의를 통해 지방의 구조적 종속성을, 내면화된 식민성을 통해 이중의 식민적 시선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부식민주의 논의는 국가 간의 제국주의 모델을 일국 내부의 지역 간 관계에 적용하면서 1960~70년대에 걸쳐 체계화되었다.¹⁶⁾ 파블로 곤잘레스 카사노바(Pablo González Casanova)는 멕시코의 맥락에서 지배집단(도시/백인/메스티소)과 피지배집단(농촌/원주민) 사이에 식민지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¹⁷⁾ 이러한 내부 식민주의 논의를 미국적 맥락으로 적용한 학자인 로버트 블라우너(Robert Blauner)는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도 아일랜드나 이탈리아 이민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류 사회에 동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부정하며, 흑인이나 원주민처럼 노예제와 토지 강탈에 의해 식민화된 소수자들은 강제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타 자발적 이민자처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적 지배 구조에 갇혀 있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 흑인의 위치를 내부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이민자 집단과는 구분되는 강제적 유입(forced entry), 지배

16) 초기에 내부식민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899년 레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이탈리아의 정치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시도 이탈리아 남부지역의 상황을 내부식민지 개념을 적용해 설명하고 있다. Antonio Gramsci, "Some Aspects of the Southern Question"(1926), In *Selections from Political Writings (1921-1926)*, Trans. Quintin Hoare, Lawrence and Wishart, 1978, pp.441-462.

17) 파블로 곤잘레스 카사노바의 멕시코 내부식민지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작을 참고. Pablo González Casanova, "Internal Colonialism and National Development", *St Comp Int. Dev* 1, pp.27-37, 1965. <https://doi.org/10.1007/BF02800542>

집단에 의한 토착 문화의 파괴, 그리고 자치권 없이 외부에 의해 관리되는 통치 방식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꼽았다.¹⁸⁾

헉터는 영국의 역사에서 잉글랜드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켈트 지역(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을 저개발 상태로 묶어두고 착취해 왔다고 주장하며, 근대화가 진행되면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고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당시의 주류 이론인 확산 이론(diffusion theory)¹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의 주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개념은 바로 '문화적 분업(cultural division of labor)'이다. 이는 중심부 사람들이 고소득이나 관리직을 독점하고, 주변부 사람들에게는 저임금 육체노동이 할당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의 위계가 문화적 차이(출신, 언어, 종교 등)와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²⁰⁾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중심부에 집중되고 주변부는 발전 기회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주변부 경제는 중심부의 필요에 종속된다. 즉, 중심부의 식량 공급, 광물 자원 등을 공급하는 데 이용되다 보니 주변부의 자생적인 산업 발전은 억제된다. 이러한 경제적 종속은 정치적으로 관리된다. 주변부의 엘리트들을 중심부의 하위 파트너로 포섭하여 주변부 내부의 불만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마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토착 세력을 앞세웠던 간접 통치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종속만으로는 주변부 공동체가 보여주는 복잡다

-
- 18) 로버트 블라우너의 계토에 대한 내부식민주의 논의는 다음의 저작을 참고. Robert Blauner, *Racial Oppression in America*, Joanna Cotler Books, 1972.
- 19) 확산 이론은 기능주의적 통합 모델의 핵심으로, 사회는 전통에서 근대로 선형적으로 발전하며, 따라서 서구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산업화 및 중심 부와의 접촉은 주변부의 낙후성을 제거하고 민족적 차이를 넘어 없앨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있다. 확산 이론을 다룬 대표적 저작으로는 다음을 참조.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Nationality*, 2nd ed., M.I.T. Press, 1966.
- 20) Michael Hechter,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30.

단한 양상, 특히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 속 어촌 선주민들의 외부자를 향한 폭력적 배타성을 온전히 해명하기 어렵다. 기존의 내부식민주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바로 아시스 난디의 식민주의의 내면화에 관한 통찰이다. 난디는 저서 『친밀한 적』을 통해 식민주의를 단순한 정치경제적 수탈을 넘어, 피지배자의 의식 세계를 잠식하는 문화적·심리적 기제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주의의 가장 큰 해악은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가치관·문화적 우월성, 과잉된 남성성 등을 생존을 위한 유일한 규범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데 있다. 난디는 이를 정신분석학을 차용해 “공격자와의 동일시”²¹⁾ 과정으로 설명한다. 억압받는 주체는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을 모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내면의 식민지'는 자신보다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타자를 찾아 억압을 전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으려는 병리적 욕망을 낳는다. 본고는 난디의 이러한 관점을 통해, <아침바다 갈매기는>의 어촌 공동체가 보여주는 배타성이 단순한 텃세가 아니라 중심부의 지배 논리를 내면화한 뒤 이를 내부의 약자(이주노동자와 외지인)에게 투사하는 굴절된 폭력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3. 문화적 분업 하의 주변부 경제 종속과 왜곡된 배타적 연대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신고

고기잡이 배들은 노래를 신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어가요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어가요²²⁾

21) 아시스 난디, 이옥순·이정진 옮김, 『친밀한 적』, 창비, 2015, 45면.

22) 이 노래는 작곡가 권길상(작사 문명호)이 한국전쟁 당시 상처 입은 동심에 희망을 주고자 만든 '바다'라는 동요의 첫 소절이다.

동요 <바다>에 나오는 이 구절은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절망에 잠긴 채 죽어있는 얼굴로 어선 조업을 하는 용수와 영국의 배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 없는 이들의 현실을 도드라지게 하는 배경이다. 40대 어부 용수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동해안의 어촌 마을로부터 탈출을 꿈꾼다. 영국에게 15년간 조업을 배운 용수를 제외하면 이 마을에는 젊은 한국인 어부가 거의 없다.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탄 뒤 어머니 판례와 베트남인 아내 영란을 데리고 이 마을을 탈출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돕는 이는 바로 그의 스승이자 선장인 영국이다. 그러나 사고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복잡한 행정 및 사법 절차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용수의 계획은 꼬여만 간다.

용수는 왜 보험사기라는 위험한 짓을 해서라도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한 걸까. 영화 속 어부들은 캄캄한 새벽녘부터 출항을 준비한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하루종일 조업해서 번 돈으로 인건비를 나누고 나면, 육체노동으로 피로한 몸을 달랠 술 한 잔 값 정도가 남는다. 그리고 술이 덜 깬 몸으로 다시 다음 날 새벽부터 조업을 나간다. 어업은 이미 관광업만도 못한 사양 산업이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어촌은 쇠락한 지 오래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베트남인 아내와 태어날 아이,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용수는 이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걸고 바다에서 힘든 조업을 하는 어부들보다 오히려 이들이 잡아 올린 생선을 어관장에서 경매하는 사람들의 입성이 더 그럴듯하다. 조업을 제때 못 했다는 이유로 경매에서 번번이 따돌림당하던 한 어부의 억눌린 분노는 영화 중반부 무렵 급기야 경매인을 향한 칼부림으로 나타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부식민주의론은 제국과 식민지 간의 종속적 발전 모델이 일국적 차원, 즉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서도 재현될 수 있

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과거 식민지의 발전이 지배국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듯이, 국가 내부의 주변부에서 이루어지는 상업과 교류 또한 중심부 구성원들에 의해 독점되거나 지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금융, 신용 체계,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중심부 출신이거나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소수의 관리자들에게 집중된다.

영화 속에 묘사된 어부(혁수)와 경매인의 관계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바다에 빠진 용수를 찾아 수색에 나서느라 사흘째 조업을 나가지 못한 어부는 “이러면 우리 수주 못 채운다”는 경매인의 성화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주나 챙기냐면서 “사람 새끼도 아냐”라며 버럭 성을 내며 대든다. 지켜보던 동료 어부는 “쟈들한테 밍보여 좋을게 뭐가 있냐”며 어부를 말린다. 시일이 흘러도 수색에 성과가 없자 어부는 다시 조업을 재개해 어획물을 가지고 오지만, 경매인에게 밍보인 탓에 결국 경매에서 배제되고 만다. 둘 사이의 누적된 갈등은 결국 어부가 경매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결말로 귀결되고 만다.

여기서 경매인은 경매에 참여해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중도매인으로, 지역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익 구조는 중심부에 종속된 대리인이라 볼 수 있다. 어민에게 싸게 사서 도시에 비싸게 넘기는 차익에서 이들의 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어촌 마을(주변부)이 아닌 도시 자본(중심부)과 일치한다. 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바로 상하는 특성 탓에 당장 팔지 않으면 폐기해야 한다. 따라서 경매인이 부르는 가격이 곧 시세가 되는 가격 결정권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생산자인 어부가 자신의 어획물에 대해 가격 결정권조차 갖지 못하는 반면, 유통을 독점한 경매인은 어부의 생사여탈권을 권 채 통제권을 행사한다.²³⁾ 이러한 비대칭적 교환 구조는 주변부에서 생산

23) KBS 시사기획 창 311회, “반복되는 농산물 산지 폐기, 유통 구조 문제? 농산물 가격의 비밀-누가 돈을 버나?”, 2020.12.19., <https://www.youtube.com/watch?v=TO2dBVmA1wY>, 2025.12.08. 확인.

된 잉여 가치가 지역 내에 축적되어 어촌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매개자인 경매인을 통한 중심부로의 수탈 기제로 작동한다. 자본 축적에 실패한 주변부의 경제는 단일 품종의 농수산물이나 천연자원 생산과 같은 1차 산업에 고착화되며, 가격 변동성이 큰 외부 시장에 대해 만성적인 의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종속은 법적, 정치적 기제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중심부는 자원의 배분권은 물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위 직책을 독점하는 반면, 주변부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다리가 구조적으로 차단당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불충분한 공공서비스, 열악한 생활 수준, 집단적인 좌절감을 야기한다. 영국과 용수의 삶의 터전인 어촌은 넓고 비위생적이며, 끊임없는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주변부에 대한 구조적 차단은 필연적으로 어촌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짙은 패배감과 알코올 의존, 그리고 우발적 폭력으로 표출된다. 영화 속 어촌 마을은 젊은 층이 모두 떠나고 중심부로의 유출,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노인들과 이주노동자들뿐이다. 이는 중심부 위주의 성장 정책 하에서 공공서비스와 생활 인프라 투자에서 철저히 소외된 내부 식민지의 전형적인 풍경이다. 영국이 보여주는 괴팍한 성장과 억눌린 분노 역시 개인의 기질적 문제라기보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열악한 생활 수준과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이 공유하는 집단적인 좌절감의 병리적 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아들인 용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판례는 매일 포구에 나와 앉아 있다. 용수가 실종된 이후 동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선을 끌고 며칠간 수색에 나서 준다. 그러나, 동네 사람의 비극에 대한 측은지심이라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수색에 따라오는 보상금 때문이었다. 남편이 사라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추방될 위기에 놓인 영란에게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다며 질투한다. 심지어 수색하느라 조업을 못 한 것을 두고도 “영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뒤에서 속닥거린다.

한때 스스로 의지를 갖고 어촌계를 조직하기도 하면서 마을 경제를 되살려 보려고 했던 형락은 마을 경제 개혁에 실패한 뒤 3년 전 배를 팔고 서울로 떠났다. 그런 그가 노숙자가 되다시피 해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남편 잃은 영란에게 인면수심의 소리를 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형락은 “그게 남편 잃은 사람에게 할 소리냐”며 내지른다. “돈! 돈! 돈! 공동체는 무슨 공동묘지지!”라고 일갈하는 그를 동네 사람들은 기둥에 묶어놓은 채 집단 린치를 가한다.

기득권을 쥔 중심부가 자원 분배의 결정권을 독점하는 내부식민주의 구조 하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핍된 주변부 공동체 내부에서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구성원 간의 제로섬(zero-sum) 경쟁이 발생한다. 영화 속 마을 사람들이 이웃의 비극을 위로하기보다 보상금이라는 금전적 이익에 집착하며 갈등하는 모습은, 경제적 종속이 야기한 가치의 전도와 도덕적 마비가 어떻게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붕괴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마이클 헤chter의 이론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헤chter는 중심부의 문화와 산업이 확산되면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통합된다는 확산 이론을 비판하며, 내부식민주 모델의 핵심으로 '반응 이론(reactive theory)'을 제시했다. 그는 문화적 분업이 존재하는 한, 산업화가 진행되어도 주변부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민족적(혹은 종족적) 연대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²⁴⁾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과 같이 이러한 연대가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영화 속 어촌 마을의 연대는 그 양상이 다르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마을 사람들의 결속은 헤chter가 말한 종족적 연대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생존을 위한 배타적인 카르텔로 왜곡되어 있다. 이들의 배타적 연대는 외부의 착취

24) Michael Hechter, op.cit., p.312.

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이주 여성(영란)이나 귀향한 실패자(형락)와 같은 내부의 약자를 배제하고 착취함으로써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경제적 방어 기제로 작동한다. 특히 형락이 마을 사람들의 물신주의를 비판하며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묘지"라고 일갈했을 때 가해진 집단 린치는 상징적이다. 어촌계를 조직하려다 실패한 형락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한 비윤리적 유통 질서와 허구적 연대의 치부를 드러내는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폭력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문화적 분업의 하층부에 고착된 주변부인들이 외부 착취에 저항하지 못하고 생존 본능에 매몰되어 저지르는 배타적 방어 기제의 발현이다. 이는 문화적 분업 하에서 연대가 왜곡되었을 때, 그 좌절된 에너지가 내면화된 식민성을 통해 어떻게 내부의 약자에게 전위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4. 내면화된 식민성과 전위된 폭력, 그리고 국가의 생명정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적 분업이 존재하는 한 주변부의 연대가 반드시 정치적 저항으로 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좌절된 연대가 내부를 향한 폭력으로 변질되는 양상은 난디의 '내면화된 식민성'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주변화시킨 중심부의 배타적 논리를 학습하고 내면화했다. 그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보다 더 낮은 위계에 있는 이주민 여성을 억압하는 가해자의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박탈당한 주체성을 기형적으로 확인하려 든다. 용수의 실종 이후 마을 민심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흥포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영란을 돕는 듯했으나, 용수의 사망보험금 규모를 인지한

후에는 “이제 부자됐네?”라며 노골적인 조롱과 질투를 표출하고, 심지어 이웃의 늙은 어부(혁수)는 영란을 성추행하려고 시도하는 등 영란의 불안정한 처지를 기회 삼아 가려져 있던 차별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를 낳고 한국에 사는 영란의 베트남 친구는 “여기 사람들 절대 우릴 자기네 사람으로 생각 안 해”라고 말한다. 이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즉 존재론적 배제에 노출된 이주민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해 <아침바다 갈매기는>의 박이웅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어촌들을 돌아다니면서 목격한 어촌의 풍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인상적이었던건 어촌 사람들이(...) 뒤영켜 지내는데
그러면서도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어촌은 선장과 선장의 가족,
그리고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되는데,
연세가 있는 마을 어른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한 하면서도 대화가 부재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²⁵⁾

이러한 이중의 배제 구조는 한국 농어촌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발생한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에서 보여주듯,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인 청년 농가 비중은 0.7%에 불과²⁶⁾하며,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해마다 6~7만명 이상이 배정되며 농어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²⁷⁾ 이들은 경제의

25) 조현나,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침바다 갈매기는> 박이웅 감독, 『씨네21』, 2024.10.25.,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6221, 2025.12.08. 확인.

26) 하지혜, 「견잡을 수 없는 농촌 고령화...65세 이상 농가 50% 육박, 『농민신문』, 2023.4.20.,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419500541>, 2025.12.08. 확인.

27)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2024년보다 약 30% 증가한 외국인 노동자 7만9000명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8개월간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합한 수치이다. 지유리, 「농업분야 일손 가뭄 해소될까...

최전선에서 필수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치부된다.

임의영은 일국의 중앙과 지방이 중심-주변의 권력관계로 구조화되는 과정이 마치 상자 안에 또 다른 상자가 들어 있는 것처럼 반복적(recursive)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²⁸⁾ 이러한 식민적 권력 관계의 재생산은 국가 차원의 중앙-지방 관계를 넘어, 영화 속 어촌마을 내부의 권력 위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마을의 중심부에는 중앙과 자본적 관계를 맺고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토호(土豪)’와 같은 경매장 사람들이 위치하며, 그 아래에 토착 어민들이 있다. 그리고 위계의 맨 밑바닥에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놓인다. 이때, 어촌의 노동 환경은 선주-내국인 선원-이주노동자의 삼중 위계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주노동자는 기술이나 숙련도와는 무관하게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적 임금 체계에 노출된다. 또한 작업장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인 영란에게 토착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을 강제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녀를 배제와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은 영란이 판례를 정성껏 챙기는 모습에는 호의를 보이다가도, 용수의 사망보험금이 엉뚱한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공동체 자원의 누출로 인식하며 고까워한다. 영란의 든든한 보호자였던 판례마저도 영란이 용수의 사망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배신감에 폭력을 가한다. 이는 영란의 공동체 내 지위가 ‘용수의 아내’나 ‘판례의 돌봄 노동자’라는 역할에 한정된 조건부적 수용이었음을 증명한다.

판례와의 갈등 후 영란이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중자가 드러운 것들”이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입에

외국인력 7만9000명 배정 ‘역대 최대’, 『농민신문』, 2025.04.2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421500568>, 2025.12.08. 확인.

28) 임의영, 「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타자화논리와 내부식민지론의 통합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142면.

올리는 장면이 있다. 이는 어촌 주민들이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화되면서 겪은 식민적 시선을 다시금 영란에게 전가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서의 이중적 위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복잡한 권력 관계와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이 중첩된 구조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 간의 연대 가능성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지역적, 문화적, 인종적 차원에서 교차하고 재생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용수의 실종 소식을 들은 영란은 하혈을 하다 병원으로 실려간다. 판례는 매일 포구에 나가 하염없이 용수의 소식을 기다린다. 보험사기극의 전말을 함구한 채로 하루 빨리 용수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영국만 좌불안석이다. 그는 이제 해경과 보험사,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시스템에 혼자 힘으로 부딪혀야 한다. 영국은 남편인 용수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어있는 영란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함께 동행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영란이 제출한 서류를 성의없이 스캔 넘겨보더니 펜으로 툭 툭 치면서 대꾸한다.

영국 결혼해서 2년을 살았는데 아직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직원 법적으로요. 애도 없고.
영국 애를 안 가진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유산을 한 건데.
직원 다들 이유가 있죠.
영국 이유가 아니라 사정이 있지 않나? 필요한 서류 다 가져온 거 아닌가?
 이 말 못하는 애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직원 남편하고 꼭 같이 오라고 저희는 전달을 했고요.
영국 바다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나?
직원 바다요? (헛웃음) 또 이유가 있네요.

남편이 동행해야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주겠다는 출입국관리소의 입장은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철저히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화 속에서 남편의 죽음은 곧바로 아내 영란의 불법체류로 직결된다. 영란이 미등록 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은 그녀가 형사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한국 남성과의 혼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주민의 ‘불법성(illegality)’이 개인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장치와 배타적 제도에 의해 사후적으로 생산되는 정치적 상태임을 역설한다.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관료주의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잔인한 무심함을 보인다. 담당 직원은 영란이 처한 실존적 비극(유산과 남편의 실종)을 행정적 처리의 결격 사유인 '핑계'로 치부하며, 불법에는 “늘 이유가 있다”는 말로 타자의 고통을 재단한다. 남편을 잃고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영란에게 체류의 정당성을 증명할 가장 무거운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여기서 영란을 압도하는 수많은 서류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이주 인구를 선별하고 배제하며,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생명정치적²⁹⁾ 통제 기제로 작동한다. 국가는 애도할 권리보다 서류상의 증명을 우선시함으로써, 기록되지 않은 존재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을 선언한다. 서류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은, 결국 주변부의 인간을 고유한 존엄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행정적 관리와 추방의 대상으로만 취급하

29) 생명정치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제안한 개념으로, 근대 국가가 개별 신체에 대한 규율과 인구 전체에 대한 조절을 통해 생명 자체를 권력의 통치 대상으로 삼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푸코에 따르면 전근대의 주권 권력이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두는’ 권력이었다면 생명권력은 ‘살게 하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으로 전환된다. 본고에서 영란을 압박하는 서류와 행정 절차는 국가가 이주민을 정치적 생명으로 승인할지, 아니면 법적 보호의 외부에 놓인 벌거벗은 생명으로 분류하여 추방할지를 결정하는 (아감벤적 개념에서의) 생명정치적 선별 기술로 작동한다.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정치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저작을 참조. 미셸 푸코,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는 내부식민주의적 통치의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³⁰⁾

5. 파국을 넘어서는 애도와 환대의 윤리

영화의 오프닝, 거센 강풍에 휘청이며 방향을 트는 갈매기의 이미지는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삶의 조건을 은유한다. 통상적인 서사가 인물의 욕망과 성취를 향해 나아간다면, <아침마다 갈매기는>의 서사는 이미 파국에 이른 현실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라는 존재론적 문제를 탐구한다. 여기서 용수의 위장 죽음은 단순한 사기극이나 도피가 아니다. 경제적 종속과 문화적 배제가 고착화된 어촌 사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동적 행위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지우는 것뿐이다. 그는 좀비처럼 살아가는 무기력한 생존 대신, 사회적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주체적인 삶을 회복하려는 급진적 탈주를 감행한다. 이러한 용수의 탈주를 완성시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을의 가장 전근대적이고 배타적인 인물로 그려진 선장 영국이다.³¹⁾ 그는 과거 자신의 친딸들을 억압하여 죽음으로 내몰거나 떠나보냈던 가부장적 질서의 대변자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혈연적 아들이 아닌, 제자 용수와

30) 이러한 ‘서류상의 죽음’이 실존적 파멸로 이어지는 양상은 변영주 감독의 영화 <화차>(2012)에서도 발견된다. 주인공 차경선은 감당할 수 없는 사재 빚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신분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자, 타인(강선영)의 신분을 도용하여 시스템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한다. 경선이 자신의 본래 이름을 지우고 유명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국가와 자본이 요구하는 서류상 자아를 획득하지 못한 인간이 겪는 ‘사회적 타살’의 과정을 은유한다. 영란이 ‘국민’이라는 배타적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인다면, 경선은 ‘신용’이라는 자본주의적 시민권을 상실하여 스스로를 추방해야 했다는 점에서, 두 영화는 행정적 지표가 인간의 존엄을 압도하는 현대 사회의 비극적 단면을 공유한다.

31) 영국을 영화의 중심인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감독은 쇠락해가는 어촌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왜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지에 관해 의문이 생겼고, 이를 깊게 다뤄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조현나, 앞의 글.

이방인인 영란을 위해 움직인다. 영란이 만들어 준 고수 향 가득한 월남 국수에 질색하고, 선원 인력 공급업체에서 이주노동자보다 한국 일꾼을 찾던 그가, 출입국관리소의 관료주의적 폭력 앞에서는 영란 대신 분통을 터뜨리고, “종자가 드러운 것들”이라 영란을 홍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니들 종자나 걱정”하라며 그녀를 옹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영국의 변화는 혈연과 지연으로 묶인 전통적 공동체가 이미 내부로부터 붕괴했음을 시인하는 동시에, 소멸해가는 지방의 빈틈을 메우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판례의 선택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뒤늦게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판례는, 함께 떠나자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폐허가 된 마을에 남기를 택한다. 이는 체념이라기보다, 자식 세대가 과거의 굴레(어촌의 가난과 부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과거의 시간에 묶어두는 모성적 결단이자 자발적 유배에 가깝다. ‘남겨진 자(영국, 판례)’가 ‘떠나는 자(용수)’와 ‘들어온 자(영란)’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고집을 내려놓는, 일종의 환대와 배웅의 윤리인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 영국과 판례가 나누는 다음의 짧은 문답은 이 영화가 도달한 서늘하고도 승고한 결론을 보여준다.

영국 갔나?

판례 갔지! 그럼!

영국 됐네, 그럼!

젊은 세대를 탈출시키고 쇠락하는 마을에 남겨진 두 노인의 시선 교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내부식민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다음 세대의 비상을 위해 기꺼이 소멸을 감내하겠다는 무언의 합의다. 그렇게 그들은 죽을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 보내기 위해’ 남는다.

본고는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균등 발전이

야기한 내부식민주의의 양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변부 주체들의 내면적 식민화를 분석하였다. 영화 속 어촌 마을은 낭만적인 고향이 아니라, 중심부에 의해 자원을 수탈당하고 남은 찌꺼기들끼리 서로를 착취하는 '공동묘지'와 같은 공간으로 재현된다. 관료주의적 시스템은 이주민과 같은 외부자를 배제하고 투명 인간화하는 생명정치적 기제로 작동하며, 마을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타자를 억압하는 병리적 카르텔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영화는 이러한 구조적 절망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파국 안에서 꿈틀대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가능성을 포착한다. 그것은 용수와 영란처럼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유령들과, 영국과 판례처럼 시스템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노인들이 맺는 기묘한 연대이다. 이들은 혈연이나 민족이라는 낡은 공동체의 문법을 넘어,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알아보고 감싸 안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환대와 배웅의 윤리는 텍스트 내부의 해법을 넘어, 실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사회가 모색해야 할 새로운 연대 모델에 대해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기존의 지역 공동체가 성장을 전제로 한 이익 공유의 배타적 카르텔이었다면, 앞으로 요구되는 공동체는 소멸과 쇠락을 공통의 조건으로 수용하는 결핍의 공유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성장 신화에 매달려 내부의 약자를 희생양 삼는 대신, '어떻게 존엄하게 소멸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서로의 마지막을 지키는 '성찰적 애도 공동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³²⁾ 비록 본 연구는 이러한 윤리가 구체적인 지역 정책이나 사회 운동으로 확장되는 실천적 기제까지 규명하지는 못하였으나, 영화가 제시한 '떠나보냄의 윤리'가 실제 지역 소멸 담론에서 '대안적 거주와 포용적 이주의 사회학적 모델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후속

32) 주디스 버틀러는 『불확실한 삶』에서 타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윤리적 공동체의 토대임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애도가 어떻게 사적인 감정을 넘어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지 설명한다.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결국 <아침바다 갈매기는>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가려진, 구체적인 개인들의 고통과 윤리적 선택을 조명하는 텍스트다. 떠나는 자의 등 뒤를 밀어주는 남겨진 자들의 쓸쓸한 배웅은, 성장과 통합이라는 근대적 신화가 끝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타자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소멸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파국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서로를 인간으로서 대면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눈>(박이웅, 2024), 트리플픽처스 & 영화사 별집.

2. 단행본

그랩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김정환 옮김,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4.

미셸 푸코, 오토르망·심세광·전혜리·조성은 옮김,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아시스 난디, 이옥순·이정진 옮김, 『친밀한 적』, 창비, 2015.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Antonio Gramsci, “Some Aspects of the Southern Question” (1926), In *Selections from Political Writings (1921-1926)*, Trans. Quintin Hoare, Lawrence and Wishart, 1978.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An Inquiry into the Foundations of Nationality*, 2nd ed., M.I.T. Press, 1966.

Michael Hechter,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Robert Blauner, *Racial Oppression in America*, Joanna Cotler Books, 1972.

Siegfried Kracauer, *The Mass Ornament*, Trans. and Ed. by Thomas Y. Levi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originally published as *Das Ornament der Masse: Essays*, Suhrkamp Verlag, 1963).

3. 논문 및 기타 자료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 보고서’, 『일본비평』 16, 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 2017.
- 손은하, 「한국영화를 통해서 본 로컬과 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2024년도판 한국영화연감』 47호, 영화진흥위원회, 2023.
- 이상립 · 이지혜 · Bernhard Koppen · 임소정 · 성백선, 「지역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임의영, 「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타자화논리와 내부식민지론의 통합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 조흡, 「<아침바다 갈매기는>: 별거벗은 삶, 포함적 배제 그리고 권력의 기하학」, 『대한토목학회지』 544, 대한토목학회, 2025.
- KBS 시사기획 창 311회, 「반복되는 농산물 산지 폐기, 유통 구조 문제? 농산물 가격의 비밀-누가 돈을 버나?」, 2020.12.19., <https://www.youtube.com/watch?v=TO2dBVmAlwY>, 2025.12.8. 확인.
- 박지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화 ‘아침바다 갈매기는’」, 『아트인사이트』, 2024.11.21.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72892>, 2026.1.2. 확인.
- 오승주, 「아침바다 갈매기가 실어올린 금빛이 터무니없이 슬프다」, 『브런치』, 2025.1.13., <https://brunch.co.kr/@dajak97/315>, 2026.1.2. 확인.
- 옥미나, 「살기 위해 택한 ‘죽음’ 이란 거짓말...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방황」, 『한국경제』, 2024.12.1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982541>, 2026.1.2. 확인.
- 윤준강, 「2024년 도착한 사회와 감독의 슬프고 아름다운 선물 ‘아침바다 갈매기는’」, ithemove, 2024.12.4., <http://m.ithem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3>, 2026.1.2. 확인.
- 조현나,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침바다 갈매기는> 박이웅 감독」, 『씨네21』, 2024.10.25.,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6221, 2025.12.8. 확인.
- 지유리, 「농업분야 일손 가뭄 해소될까...외국인력 7만9000명 배정 ‘역대 최대’」, 『농민신문』, 2025.4.21., <https://www.nongmin.com/article/>

20250421500568, 2025.12.08. 확인.

하지혜, 「건잡을 수 없는 농촌 고령화...65세 이상 농가 50% 육박」, 『농민신문』, 2023.4.20.,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419500541>, 2025.12.8. 확인.

Pablo González Casanova, “Internal Colonialism and National Development”, *St Comp Int. Dev* 1, 1965, <https://doi.org/10.1007/BF02800542>

Abstract

Catastrophic Representations of Local Extinction and the
Emotional Structure of the Internal Colony:
A Study on the *The Land of Morning Calm*

Lee, Jeeheng

This study focuses on the catastrophic representations of local extinction depicted in the film *The Land of Morning Calm*, set in a rural fishing village in South Korea. Amidst the landscape of a contemporary fishing village where the youth have departed and only the elderly and migrant workers remain, natives and outsiders coexist due to realistic necessities. However, the film reveals that deep-seated prejudice against outsiders, violent communalism, and bureaucratic indifference persist beneath the surface. These representations unveil a complex structure of feeling regarding the question, "Why do today's local communities hurtle towards extinction and catastrophe?" transcending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explanations offered by existing discourses on local extinction.

To analyze this, this study critically employs Michael Hechter's theory of internal colonialism and Ashis Nandy's discussions on internalized colonization. The fishing village in the film is represented as an internal colony where economic exploitation by the center and a rigid cultural division of labor have become entrenched. Here, the "ethnic solidarity" described by Hechter does not function as a political force resisting external exploitation but degenerates into an exclusive cartel that excludes the internal weak for the sake of survival. This study traces how this distorted solidarity displaces violence onto migrant workers—the most vulnerable group—through the mechanism of "internalized colonization" as pointed out by Nandy. Furthermore, it reveals that the state's bureaucratic system,

rather than controlling this violence, operates as a bio-political mechanism that defines and excludes migrants as "illegal entities" through documentary verification.

However, in its conclusion, the study interprets the choice of the older generation to assist the escape of the younger generation, even amidst structural catastrophe, as the manifestation of a new ethical possibility. This constitutes an "ethics of hospitality and send-off" that transcends exclusive communalism bound by blood and region, embracing mutual deficiencies and willing to endure one's own extinction for the flight of the Other. Ultimate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eeks to explore the reflective attitudes and methods of alternative solidarity that must be borne by those left behind in vanishing spaces, moving beyond existing discourses that reduce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to a mere demographic crisis.

Keywords: Alternative Solidarity, Bio-politics, Catastrophe, Cultural Division of Labor, Immigrant Worker, Internal Colonialism, Internalized Colonization, Local Extinction

접 수 일: 2025년 12월 9일

심사기간: 2025년 12월 16일~2026년 12월 28일

게재결정: 2026년 1월 10일